

# 이게 과연 예술?... 관객은 의심, 작가들도 궁금한 '발칙한 예술'

July 9, 2019 | 홍진수 기자

## 이게 과연 예술?... 관객은 의심, 작가들도 궁금한 '발칙한 예술'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전시

'도대체 어디까지가 예술일까. 과연 이런 것도 예술로 봐야 할까.' 이런 의문은 관객들만 품는 것이 아니다. 작가들 역시 궁금하다. 관객들이 어디까지 예술로 받아들일지 알고 싶어한다.

서울노원구에 있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이 지난날 28일부터 열고 있는 '2019 타이틀매치: 김홍석 vs 서현석 <미안의 폐하>'는 이런 질문을 '물적구차함' 단진다. 또 온갖 불거리가 주변에 널려 있는 시대에 미술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제안한다.

'다이얼렉시'는 2014년부터 북서울미술관이 연례행사로 개최하는 기획전이다. 개성 강한 두 작가의 한 전시에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2017년까지 4년간은 '원로작가 대 차세대작가'로 쪽을 지었다가 지난해부터는 연령 기준과 상관없이 작가들을 선정하고 있다. 아무래도 젊은 작가들이 원로작가와의 대결 구도를 부각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김홍석(65)과 서현석(54)은 비슷한 나이대의 작가다. 북서울미술관이 김홍석을 먼저 선보였고, 김홍석이 서현석을 초대해 타이틀매치가 성사됐다.

김홍석은 이번 전시에 '인간질서' 프로젝트란 이름을 붙였다. 관공서인 미와 작품에 대한 개념 등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놓은 기존 질서의 체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물결인간 질서개발(의지)'은 24점으로 구성된 스토리롭 조각상이다. 각 조각상

에는 노박사, 우주인, 북서봉의 이름이 들어 있다. 김홍석은 조각상을 먼저 만들고 이름은 뒤에 붙였다. 생각나는 대로 조각을 한 뒤 모습에 걸맞은 이름을 붙이는 대로 정한 것이다. '썩다리'를 쥔고 있는 조각상은 '양이차'라고 하는 식이다.

전시장 한쪽에서는 사과 500개로 만든 여인 '사과딸'이 밭 그대로 씩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기에 사과 곶은 삭फल을 만들기에 적당한 소재는 아니다. 지난 2일 전시장에서 만난 김홍석은 "일대는 3주에 한번 사과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날이 더워 2주만 바뀌어 왔 것 같다"며 "사과가 완전히 썩어 없어지고 프레임만 남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쪽 벽에 나란히 걸려 있는 비닐봉지와 종이봉투도 '인간질서(행성)'란 이름을 단 작품이다. 각각의 봉지의 봉투에는 작가의 주변 사람들이 쓰고 있던 물건을 넣어 있다. 김홍석은 "이 작품은 사람들이 무언가 꼭꼭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 사용했던 물건들"이라며 "이렇게 소중했던 물건들은 부족한 바를 이루고 나면 소외되거나 잊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홍석이 전시장을 꼭 채운 반면 서현석은 공간을 거의 대부분 비워뒀다. 서현석의 전시장 입구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다. 커튼은 열고 들어가면 전시장은 텅텅하다. 한쪽 구석에 전시상 하나가 쓰러져 있고, 작은 장 앞에는 의자가 놓여 있을 뿐이다.

서현석이 이번엔 내놓은 전시 수재는



김홍석의 '불완전한 질서개발(의지)'은 24점으로 구성된 스토리롭 조각상이다. 각 조각상에는 노박사, 우주인, 북서봉의 이름이 붙어 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제9공

작가 대결 구도... 김홍석 대 서현석 스토리롭 조각상에 특종적인 작명 전시장 거의 비워 VR로 패허 구현 '미술관, 배경 아닌 주인공 되도록'

"먼지극장"이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미술관, 인종의 거대한 패허를 구현하려 했다. 그렇다고 해서 미술관 전체 공간을 패허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은 '가상현실(VR)'이다. 서현석의 전시장 입구 앞에서는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기기 속 영상에서는 실제 미술관에 있는 공간 곳곳이 펼쳐로 변해 있다. 서현석은 "미술관 공간 그 자체가 배경이 아닌 주인공이 되도록 작품을 구성해보았다"며 "레퍼블릭의 체험



서현석의 전시장은 왼쪽 구석에 전시상 하나가 쓰러져 있고, 작은 장 앞에는 의자가 놓여 있을 뿐 텅텅 나뒀다. 서현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미술관, 일종의 패허를 구현하려 했다. 작은 사진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해 볼 수 있는 패허가 된 북서울미술관 1층 모습.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제9공

은 작가의 정의력에 앞서 공간이 가진 기본적 물성에 의해 일차적으로 구축된다"고 말했다. 텅 빈 전시장과 가상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서현석은 미술관 안에 있는 책다른

은풍 콘크리트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서 고통학생 정가(한국 고유의 성악곡)가 수인 안연우에게 노래를 하도록 했다. 회색 공간과 안연우의 청아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묘한 감흥을 준다. 이 퍼포먼스는 토요일 오후 2시의 3시이전 펼쳐진다. 공간이 협소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의 관람권 들어갈 수 있다.

김홍석은 "인간질서 프로젝트들 통해 우리 인식 체계와 규정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미술을 수용하는 범주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했다"고 말했다. 서현석은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야망과 브로드의 비전이 무너진 뒤 오늘날의 작가로서 허망한 사신을 패허가 된 미술관 이미지로 담았다"고 밝혔다. 관람료는 무료. 전시는 오는 9월15일까지 이어진다. 홍진수 기자 soojin@kookilnews.com